치고 막고 달리고…야구, 참~ 쉽게하는 '박찬虎'

KIA 거침 없는 연승 중심 박찬호… 공·수·주에서 MVP급 활약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 8월 '쉘힐릭스플레이어' 타자 부문 수상
"과감한 플레이가 장점…팀 승리 위한 질주 가을잔치 가는데 최선"

뜨거웠던 8월을 보낸 박찬호가 9월에도 기세를 이을 수 있을까?

박찬호가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반으로한국쉘석유주식회사와 KBO가 시상하는 8월 '쉘힐릭스플레이어' 타자 부문 수상자가 됐다.

박찬호는 8월 KIA가 치른 22경기에 모두 출전해 89타수 34안타, 타율 0.382를 기록했다. 최다 안타 4위, 타율은 전체 5위다.

또 박찬호는 출루율 0.466(3위), 22득점(2위), 6도루(5위)를 기록하는 등 1.86의 WAR을 찍으면서 말 그대로 팀 승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

KIA의 거침 없는 8연승 중심에도 박찬호가 있었다.

연승의 시작점이었던 8월 24일 KT 원정에서 박찬호의 원맨쇼가 펼쳐졌다.

KT 에이스 고영표가 출격했던 이날 KIA는 7-3 재역전승으로 연패를 끊었다.

1-2로 뒤진 6회초 내야 안타로 출루한 박찬호는 2루수 실책으로 2루까지 간 뒤 나성범의 우전 안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2-2를 만들었다.

이후 2-3으로 리드를 내줬던 KIA는 박찬호의 발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8회초 볼넷으로 나간 박찬호가 2루 베이스를 훔쳤고, 최형우의 적시타 때 홈에 들어왔다.

8회말 잇달아 좋은 수비로 KT의 추격 의지를 꺾은 박찬호는 9회초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공·수·주에서 MVP가 됐다.

연승의 분수령이었던 8월 31일 NC전에서도 박찬호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날 KIA는 리그 에이스인 NC 페디를 상대로 3회말 타자일순하는 공격력을 과시하며, 13-3 승리로 5연승에 성공했다.

톱타자 박찬호가 빅이닝의 시작점이자 마침표였다.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으로 출루한 박찬호는 도루로 상대를 흔들었다. 김도영의 우중간 2루타로 득점까지 성공한 박찬호는 2사 만루에서 3회 두 번째 타석에 섰고 적시타를 날리며 페디에게 KO펀치를 날렸다.

'8월의 선수' 박찬호는 KIA가 8연승을 찍은 3일 SSG전에서 멀티히트와 2개의 도루까지 기록하는 등 9월 출발이 나쁘지는 않다.

박찬호가 올 시즌 우선 목표로 내세운 '가을 잔치'로 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격수인 박찬호는 톱타자도 맡고 있다. 가장 많이 움직이면서 내야를 조율해야 하는 포지션에서 박찬호는 소크라테스(920.1이닝)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비 이닝(908.1)을 소화하고 있다. 톱타자로 가장 많은 타석에도 들어서고 있다.

박찬호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면서도 "신기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웃었다.

고무적인 부분은 체력 저하에도 센스와 집중력 그리고 과감함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페디를 공략할 때도 "첫 타석에서 내 스윙으로 돌렸는데도 3루 땅볼이 됐다. 다음 타석에서는 무조건 볼넷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이었다. 적시타 상황에서도 공이 너무 좋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 공이 몰리면서 칠 수 있었다"고 언급했었다.

박찬호는 "내 장점 중 하나가 플레이에 겁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다.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빠른 상황 판단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플레이를 시도하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호의 주루도 상대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 지난해 '도루왕'이기도 한 박찬호는 4일 현재 27도루로 1위 신민재를 3개 차로 추격하고 있다. 도루 욕심 없이 승리를 위해 달리다 보니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찬호는 "도루 1위에 대한 욕심은 없다. 내 목표는 오로지 팀이 이기는 것이다. 팀이 이길 수 있게, 득점을 할 수 있게 상황에 맞게 뛰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골든글러브라는 목표를 위한 개인적인 도루가 아니라 팀 승리를 위한 질주로 남은 시즌을 보내고, 나중에 성적표를 받겠다는 게 박찬호의 각오다.

박찬호는 지난해에도 뜨거운 8월을 보낸 뒤 9월 분위기를 잇지 못했다. 지난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KIA가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그레이드에 성공한 박찬호가 예년과는 다른 9월을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영건들,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 앞장

U-23 아시안컵 예선 23인
엄지성·허율 선발
임대 조성권·군복무 신송훈 포함

광주FC의 영건들이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힘을 보탠다.

대한축구협회가 5일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의 첫 관문인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나설 23인의 최종명단을 발표했다.

광주 '에이스' 엄지성(MF)과 '장신 공격수' 허율(FW)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포FC에 임대 중인 조성권(DF)과 김천상무에서 군복무 중인 신송훈(GK)도 최종 23인이 되면서 광주 유스인 금호고 출신 4명이 2024 파리 올림픽을 위한 여정에 나선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1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 예선을 소화한다.

이번 예선을 통과해야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격인 내년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파리 올림픽 1차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대결을 통해 총 1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카타르가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티켓을 확보했고, 예선 11개 조의 각 조 1위 팀과 조 2위 가운데 상위 4개 팀이 남은 15자리를 채우게 된다.

한국은 B조에서 경쟁하며 6일 오후 8시 카타르와 첫 경기를 치른 뒤 9일 키르기스스탄, 12일 미얀마와 차례로 대결한다.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무대에서 광주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광주 금호고 시절부터 꾸준하게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엄지성은 왕성한 활동량과 자신만의 템포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광주의 에이스다.

엄지성

최근 페이스도 좋다. 엄지성은 광주가 치른 8월 4경기에 모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8월 마지막 경기였던 27일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4-0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엄지성은 K리그 8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엄지성은 "대표팀은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대표팀이 원하는 걸 수행해야 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만큼 팀에 헌신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부상 없이 좋은 경기 결과로 마무리하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역시 금호고 출신의 허율은 193cm의 장신으로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 싸움에서 기대를 모은다. 또 큰 키에도 빠른 발을 가지면서 '발밑 플레이'도 뛰어난 다재다능한 공격수다.

허율은 "부상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번 대표팀에서는 내가 가장 잘 하는걸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언급했다.

대표팀은 지난달 28일 부상 등의 변수를 감안해 26명의 선수를 소집했다. 황선홍 감독은 이날 최종 23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3승으로 본선 티켓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한국은 2022 도쿄 대회까지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위업을 이뤘다. '황선홍호'는 올림픽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한다.

황선홍 감독은 이날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선 기자회견에서 "U-23 아시안컵 본선에 나가기 위해 이번 예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경기력으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울산 꺾은 광주FC, K리그1 29라운드 베스트팀

1위 울산현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광주FC가 2라운드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29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가 베스트팀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는 지난 3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조직력으로 1위 팀을 괴롭혔다.

그리고 광주는 전반 17분 이건희에 이어 후반 9분 베카의 골이 나오면서 2-0 승리를 기록했다.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고, 8년 만에 울산을 상대로 승리를 만든 광주는 베스트팀이 됐다.

광주는 지난 28라운드 경기에서도 수원 삼성을 4-0으로 꺾고, 베스트팀이 됐었다.

울산을 상대로 K리그 첫 골을 장식한 베카와 무실점 승리를 이끈 이순민은 베스트11에 선정됐다.

이번 라운드 MVP는 수원FC의 1-0 승리를 이끈 우고 고메스에게 돌아갔다. 우고 고메스는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 적극적인 수비로 팀의 무실점 승리의 주역이 됐다.

K리그2 30라운드 MVP는 김포FC 주닝요의 차지가 됐다.

주닝요는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장식하며 김포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 경기에서 김포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호난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8분 터진 주닝요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후반 종료 직전 주닝요가 다시 한번 골을 넣으면서 김포가 2-1 역전극을 연출했다.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도 선정됐다.

베스트 팀은 부산아이파크가 됐다. 부산은 FC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성호영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K리그2 선두로 올라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해트트릭 손흥민, EPL 4라운드 베스트11 선정

해트트릭을 폭발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주간 베스트 11에 뽑혔다.

손흥민은 4일(현지시간) EPL 사무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3-2024시즌 EPL 4라운드 '이주의 팀' 공격진에 이름을 올렸다.

공식 베스트11을 선정하는 전설적 공격수 출신 언론인인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향해 "해트트릭을 만들었다. 팀의 핵심 선수가 된 데 따른 압박감을 즐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번리와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6분에 이어 후반 18분과 21분 득점포를 가동하며 토트넘의 5-2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과 함께 베스트11 공격진에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과 에번 퍼거슨(브라이턴)이 선정됐다.

역사적 활약을 펼친 이들은 전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뽑은 라운드 베스트11에도 나란히 최전방 세 자리를 차지했다.

EPL은 토트넘의 부주장 매디슨을 포함해 데클런 라이스(아스널), 루이스 파케타(웨스트햄), 빌리 길모어(브라이턴)가 4라운드 최고 활약을 펼친 미드필더로 선정됐다.

수비수로는 조 고메스(리버풀), 윌리 볼리, 조 워럴(이상 노팅엄)이 이름을 올렸다.

골키퍼 자리는 조던 픽퍼드(에버턴)가 꿰찼다.

더불어 토트넘의 3연승을 이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주의 감독으로 뽑혔다.

시어러는 "선수들은 그의 공격적인 3-4-3 포메이션 체제를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